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지저스타임즈 사장

부활절 말씀

예수님의 대한 기록 중에 가장 논쟁거리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부활일 것이다.

또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 하기가 나도 신앙이 어릴 때는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눈이 조금씩 열리며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서다.

예수님 부활 이 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부활 이 후에 제자들의 삶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후의 제자들은 소망도 없는 실 패자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단 장부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졸장부였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그전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두려움도 아까운 것 없는 목숨을 건 삶이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꾸었을까? 그것은 딱한 가지였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살아나심도 그리고 승천하심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한 그들이기에 다

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으니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고 그 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도 아깝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사실인가? 거짓인가?

그것은 그분의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서 직접 지켜본 자들의 삶이 증거 한다. 왜? 그들이 그분께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알았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은 성경 두 군데에서만 나오는데 부활의 사건의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있다.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면 탄생도 거짓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면 성경 전

체도 우리의 믿음도 다 거짓이 된다는 얘기이다.

코로나 이 후 세 번째 맞는 부활절이다. 이렇게 역사적이고 확실한 부활의 사건을 기리며 축하하고 믿는 정말 복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지저스타임즈 가족들 위에 부활의 소망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께로부터 허락되는 큰 소망의 복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



김성욱 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부활신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자들의 부활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자신은 부활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결코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정신과 사상이 현실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부활로 설명하기에 부활에 대한 분명한 강조가 필요함을 느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상을 넘어,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도 중요하다.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성도들은 내세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철저하게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신앙적 삶에 중요한 근거로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죽지 않는 것 혹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소망을 넘어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은 단지 원상회복이 아니고 죽기 전 상태보다 더 나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이런 죽음을 죽지 못 할까 봐 혹은 죽지 않을까 봐 걱정이지, 세상사람들처럼 죽을까 봐 걱정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다.

부활신앙은 죽은 이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데, 현재 물질인 육체로 살다가 죽으면, 신령체로 부활하며 영원히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기에, 죽기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로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졌다면, 누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겠는가?

한결을 더 나아가 부활에 대한 믿음은 성도의 삶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으로 연결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 5:29)의 말씀에 따르면, 신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부활한다는 사실이다.

즉 성도들은 영광과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불신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하여 부활한다. 이를 인식한다면 죽어가는 심령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더 전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신자이지만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에 빠져 이 놀라운 부활의 믿음이 없이 산 사람들은 영광과 기쁨의 절정의 부활이 아니라 그냥 부활이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며 주님과 영원히 행복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산 사람은 영광과 승리의 부활로 나아가 영원히 기쁘고 즐거움 속에 살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에 부활에 대한 사실과 감격을 넘어 이러한 부활신앙을 강조하여 내세를 준비하는 삶의 자세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한기총 2022년 부활절 메시지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 가득하길



김현성 변호사

과 온 세계 위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로마서 5:8)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곧 사랑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찾지 않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칼과 창으로 찌를 때에도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받으시고 희생된 사건이 십자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믿으며, 또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남을 위한 섬김과 겸손,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천국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요15:13)’고 하신 것처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 핍박과 환난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 야욕이 그치며,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도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핍박, 환난 중에 있는 모든 분을 위로하며, 억압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과 행동으로 도우며, 그 아픔에 동참할 때 더 큰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처한 모든 고난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이며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를 나누어줄 것입니다.

2022년 4월 17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시대표회장 변호사 김현성

대한민국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 제19회 사랑의음악회'개최



음악회'가 2022년 4월 18일(월) 오후 8시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BS, YTN, CTS기독교TV, WBC복지TV, 국민일보, 한국수출입은행이 후원하는 이번 공연은 대한민국 제42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념하여 장애인에게에 역량강화 기회제공과 더불어 장애인합창단 홍보 및 장애인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개최되며, 전국장애인합창대회 역대 수상 장애인합창단과 비장애인합창단, 연합 오케스트라 및 전문예술가의 연합 공연으로 진행된다.

전국장애인합창대회 역대 수상 합창단인 영월동강합창단(지체장애), 푸르나 메합창단(지체장애), 라파엘코러스합창단(시각장애)과, 골프존파스텔합창단(발달장애)과 사)한국합창총연합회 소속 비장애인 합창단인 더보이스챔버와이어,

를 콰이어, 강동구립여성합창단, 청운콰이어, 송파구립합창단, 21C 남성합창단과 연세 아미란스합창단이 출연하며, 오케스트라는 국장합 나눔챔버오케스트라(발달장애), 펠리체예술단(발달장애)과 서울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가 출연한다.

이지원, 이승연 민요자매와 소프라노 신델라, 바이올린 김정연의 협연으로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장애와 장르를 뛰어넘어 음악으로 하나 되는 1부에서는 오케스트라공연과 협연, 연합합창으로 풍성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며, 2부에서는 전국장애인합창대회 역대 수상 장애인합창단과 비장애인합창단의 연합무대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느낄 수 있는 무대가 준비되어있다.

본 공연은 전석 초대로 진행되며 문의처를 통해 관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연 종료 후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중앙회 홈페이지(www.nanum.tv), 전국장애인합창대회 홈페이지(www.ncf1203.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람문의 :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중앙회 02-2282-7114, 워너스기획 02-521-8211

축 부활

한국기독교 장로회

평안하고 든든한교회

제일성전「홍성제일장로교회」

충남 홍성읍 흥복읍 자경리51(tel. 041)631-9146 교회카페 Http://Cate.Daum.Net/Ssaxp

예배 시간 안내

주일 낮 1부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주일 밤, 수요일 밤 / 예배 저녁 7:30분
홍성, 내포성전 주일 낮, 주일 밤, 수요일 밤예배 시간 동일함.

『홍성제일장로교회 담임』

홍성성전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번지
Tel : 041)634-0441

담임목사 오종설

지저스타임즈 신문 방송
이 사장

예장진리총회 대한노회 제28회 봄 정기노회 열어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심령이 변화되어야



대한예수교장로회(진리)총회 대한노회(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지난 4월 12 일(화) 오전 11시 경기도 의왕시 계원 대학로 “주사랑교회”에서 대한노회 제 28회 봄 정기노회를 개최하고, 1부 예배, 2부 성찬식, 3부 회무처리 등 안건 토의를 갖고 폐회 예배를 끝으로 성 노회를 마쳤다.

서기 박민규 목사의 인도로 1부 개회 예배가 시작되어 회계 김정미 목사가 기도를, 인도자 박민규 목사가 성경 히

으로 인하여 목회자나 성도들이 지쳐있는 때라면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는 서로 크게 소리 내어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모여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앙인들이 두려워하고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교회의 발길을 끊고 모이지도 못하고, 신앙의 암흑기를 맞고 있는 듯,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바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마음

이 아프기에 기도드리라고 했다.

누구든지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힘과 용기를 주신다며 힘을 내자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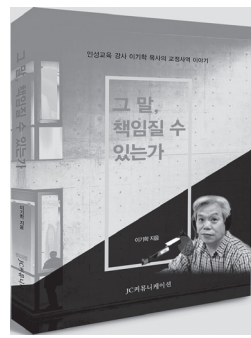
이날 노회장 장한국 목사의 메시지는 지저스타임즈 cjtn tv 방송에서 영상을 통하여 시청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기 박민규 목사의 광고에 이어 노회장 장한국 목사의 축도로 1부 개회 예배를 마쳤다.

제2부 성찬 예식은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은혜롭게 진행되었으며, 주사랑교회 노회장 장한국 목사 와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노회원들을 대접하여 힘을 얻어 제3부 봄 정기노회 회무 처리에 들어가 의장 장한국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김은임 목사가 기도하고, 회원 점명과 개회선언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아울러 노회에서 결의한 2022년 하계 수련회는 임원회에 위임하여 공지할 것이라고 했다.

제4부 폐회 예배는 노회장 장한국 목사 인도로 유순옥 목사(감사)가 기도했으며, 장 노회장은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선포한 후 축도하고, 제28회 성 노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다.

당신의 자녀도 교도소 문 앞에 서 있을 수 있다



부 모 님들의 행복지가 무엇일까?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는 것, 어떤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것, 특히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바라고 기대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대가 클수록 자녀 앞에서 바르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15년 전 부산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아들은 박사로 유학까지 다녀온 유학파였다. 사회적으로는 박사이고, 안정된 직장도 있었다. 아버지는 기업의 이사로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웠다. 교회에서 아버지는 장로이고, 어머니는 권사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다. 남들이 볼 때는 다복하고 안정된 가정, 어쩌면 부러움의 대상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아들이 술 한잔하고 아버지를

살해한 것이다.

아들은 무기징역을 받았다. 아들이 수감 생활을 하는 중에 어머니인 권사님이 아들의 상담을 요청했다. 아들을 상담하면서 아버지를 죽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장로와 이사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지만, 집에서 는 폭군이었고, 악마였다고 한다.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지만 집에 와서는 목사님과 성도들의 험담을 늘어놓았다.

어쩌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욕과 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집에서 수시로 술을 마시며 엄마에게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폭언과 구타를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아버지를 죽인것이 아니라 악마이고 사탄인 괴물을 죽인 것이라고 했다.

자녀는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가치관을 결정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인생을 배우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한다. 모든 부모가 자녀들이 잘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런데 자녀들의 눈에 보이는 부모의 모습은 어떠한가!

가출한 청소년들이 집에서 나온 이유는 한마디로 숨을 쉴 수가 없어서라고 한다. 폭언하는 부모가 있는 집의 자녀는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 중에 끔찍한 범죄 행위를 하거나 강력범 혹은 문제수일수록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사람이 많다.

그들은 마음에 폭탄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간다.

부모의 행동은 곧 자녀의 미래가 된다. 자녀들의 행복과 불행은 가정에서 시작이 된다. 자녀들이 행복하고 바르게 살기를 바란다면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할 것이다.

부모로서 당신이 하는 폭언과 폭행은 자녀가 교도소로 향하도록 등을 떠미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당신의 자녀가 교도소 문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겠다. 아니 부모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자 이기학 목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 대통령 탄신 147주년 기념식 한인사회 화합과 단결, 권익신장 결의



▲ 이승만 대통령 탄신 147주년 기념식이 지난 26일 새한교회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년 새해가 밝아오면서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회장 최학량 목사)는 지난 26일(토) 새한교회(담임 노영호 목사)에서 이승만 탄신 147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김성욱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회장 최학량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어수선하고 혼란에 빠진 시기에 직접 개입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감사하며 높이 찬양한다. 이승만 건국대통령이 없는 대한민국은 생각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은 것, 공산

주의와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던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이런 시국관이 오늘의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건설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재미헌병전우회 기수단 입장으로 시작된 기념식은 김영구 목사(세계기도모임미서부지부 총재)가

개회기도를 한 후 이경호 목사의 선창으로 미국 국가와 애국가를 부른 뒤 이승만 건국대통령 영상을 시청한 후 남가주 배재동문화 중창단이 찬양을, 이정현 목사(개혁장로교회신학대학원 총장)가 ‘민족의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 목사는 “목회자들은 성경, 역사, 문화 이 세 가지를 잘 알아야만 한다. 첫째, 성경을 거울(Mirror)로 삼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자. 둘째 성경을 창(Window)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창은 오늘의 문화와 역사를 바로 볼 수

있게 해 준다. 목회자들은 역사에 밝아야 한다. 지나간 역사에 밝아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한국의 바른 역사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 세가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기본 덕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성경, 역사, 문화를 깨우치는데 앞장서는 자들이 되자”고 말했다.

김충석 찬양 목사(새한교회)가 특송을 한 후 (사)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 황교안(대독 지희순 이사장), 이승만대통령기념연구교육재단 총장 양동자(대독 이정순 박사), 임태광 회장(자유민주통일연합회), 김재권 이사장(미주성시화운동본부), 이정현 목사(한기총 미주총회 대표회장)가 축사를, 미주 3.1여성 동지회 회원들이 합창을, 김준배 회장(광복회미주서부지회), 송그레이스 회장(미주3.1여성동지회)이 격려사를 한 뒤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외친 후 새한교회 담임 노영호 목사의 축도로 기념식을 마쳤다.



▲ 이승만 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 최학량 목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여 대대손손 복을 누립시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여 대대손손 복을 누립시다"

신명기 4장 40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주의 규례들과 주의 계

명들을 지키지니라. 이는 너와 네 뒤에 올 네 자손이 잘되어 주 너의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영원히 오래 살게 하려는 것이니라.

만물이 푸르러지는 생명의 봄이 오니 산과 들이 푸른 빛을 띠고 만물이 소생합니다. 저희 교회 옥상에도 또 한차례 추위를 이겨낸 아로니아를 비롯한 식물들이 싹을 내밀어 날마다 커가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경건해지는 마음입니다.

사순절기간을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봄에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야 할 시대적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봅니다. 예수님 재림 전까지는 아직 "은혜받을만한 때요 구원받을만한 때"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혼란스럽고 복잡한 이 시대에 태어나 세상 가운데 화를 이루어가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명 향해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경관
통일선교사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심의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목사 이사장: 오충철목사 사장: 소진우목사 발행인: 정기남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본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ipress@hanmail.net / jtntvcj@naver.com

▶팩스 : (032)672-3031

▶HP : 010-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 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 부터~

▶1년 구독료 : 5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좋은 만남 행복한 성도



담임목사 박수영

예배 시간 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
금요일기도	오후 8시
새벽기도	오전 6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16길 11 동대구반도유보라 후문
TEL. (053) 752-8238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신입생모집요강



김창숙 목사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은 세계로신학술원과 학점교류를 통해 세계로신학술원 학장명의로 졸업장 수여함.

◆ 과점수로 후 세계로신학술원을 통해 연장수업으로 (USA)Cumberland University 학위 취득이 가능함.
과정 : 찬양, 율동, 위업, 한국무용
수업요일 : 매주 월, 수, 금

장소 : 꾸미오리선교센터(경기도 양주시 교암동182-3)
문의 : HP 010-4137-0796(김창숙 목사)



세계로신학술원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아직도 장례비용 선불로 내고 계십니까? 필요한 품목만 정하는 선택형 서비스

01. 단순장례식 120만원

- ➔ 임종시 이송차량 관내제공
- ➔ 고인용품 : 관, 수의, 입관용품
- ➔ 염습 : 소렴과 대렴 입관
- ➔ 고급리무진 OR 장의버스 선택
- ➔ 화장시 : 묵함 매장시 : 횡대

02. 3일장 기본장례식 185만원

- ➔ 임종시 이송차량 관내제공
- ➔ 영좌설치 : 빈소용품
- ➔ 고인용품 : 관, 수의, 입관용품
- ➔ 염습 : 소렴과 대렴 입관
- ➔ 고급리무진 OR 장의버스 선택
- ➔ 화장시 : 횡대봉인함 매장시 : 횡대

03. 3일장 고급장례식 220만원

- ➔ 임종시 이송차량 관내제공
- ➔ 영좌설치 : 빈소용품
- ➔ 고인용품 : 관, 수의, 입관용품
- ➔ 염습 : 소렴과 대렴 입관
- ➔ 고급리무진 and 장의버스 제공
- ➔ 화장시 : 횡대봉인함 매장시 : 횡대

1644-2542/010-3788-1130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담임목사 김창룡



상담목사 박영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GD FC
GOD DESIGN FELLOWSHIP CHURCH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웨신 호남노회 춘계 정기노회 가져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호남노회(노회장 임예성 목사/웨신 제2부총회장)는 지난 4월 4일(월)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명성교회(담임목사 고경자) 본당에서 춘계 정기노회를 열고 1부 경건 예배, 2부 성찬식, 3부 춘계 정기노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1부 경건예배는 호남노회 서기 김태욱 목사(동행교회)의 인도로 시작되어 부노회장 김사라 목사(푸른솔교회)가 기도를, 회계 유한주 목사(하늘빛교회)는 성경 대상 4:9~10절을 봉독하고, 특송 이정혜 목사(생명샘교회), 노회장 임예성 목사(벨엘교회)는 “야베스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봉헌기도에 허성준 목사(섬기는 교회), 허창범 목사(웨신총회 증경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노회장 임예성 목사(웨신 제2부총회장)는 야베스의 기도를 제목으로 1.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옵소서, 2.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3.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4.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등의 소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선포했으며 많은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

2부 성찬식은 증경총회장 허창범 목사의 집례로 직전 부총회장 마순덕 목사(사

랑하는교회)가 기도드린 후 분병분병 위원에 고주영 목사(장흥팔복교회), 이효순 목사(행복한교회) 등이 맡았다.

3부 호남노회 봄 정기노회는 노회장 임예성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고경자 목사가 기도를, 서기 김태욱 목사의 회원 호명으로 노회장 임예성 목사의 개회선언에 이어 회의록낭독 서기 고주영 목사, 서기 김태욱 목사의 절차보고, 회계 유한주 목사의 회계 보고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안건토의로는 ① 강도사 고시의 건, ② 웨신총회 하계수련회 노회원 전원 참가를 결의하고, ③ 호남노회 바울 국제 부흥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총재 허창범 목사는 부흥사의회의 연역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고 호남노회의 각 회회를 순회하며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집회를 열고 회원들이 지역을 돌며 전도하자는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차기 노회의 장소, 기타 안건 등을 다루고 회의록 채택에 이어 합심 기도, 감사패 증정, 폐회 선언, 양연석 목사(예인교회)의 식사기도 순으로 호남노회 춘계 정기노회를 성중 마쳤으며 이날 식사는 명성교회 옥상에 자리를 마련하고 담임 고경자 목사와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마련한 애찬을 나누며 덕담을 주고받는 등 화기애애한 가운데 각자 작별인사를 나누며 돌아갔다.

한영훈 한장총 대표회장, ‘2022년 부활절 메시지’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누리에 가득하길...



한영훈 목사
대표회장

한국교회에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활절을 맞아 산야에는 봄기운이 가득하지만 세상은 전쟁과 폭력, 대립과 갈등으로 고통당하며 생명과 평화가 위협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과 고통과 죽음의 절망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며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부활절을 맞아 생명이요 소망이

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두려움과 어둠에 굴복하지 않고 이겨냅니다.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과 소망의 기운으로 한국교회의 회복과 영적부흥을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며 두려움을 쫓아내는 ‘평강’(평화)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교회는 온갖 죄와 다름을 해결하고 치유하는 평화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상처받은 교회를 회복시키며 세상의 위로자와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절망가운데 아파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섬김의 모습으로

사회의 낮은 곳을 찾아 가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①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의 종식을 위해, ② 강원·경북지역 산불피해 이재민들의 복구와 회복을 위해, ③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과 평화와 회복을 위해, ④ 북한의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위해, ⑤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과 영적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보이신 모범대로 자신의 이익과 권한을 내려놓고 겸손과 자비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부활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도전에 맞서 담대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부활절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평화와 예수님의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2022. 4. 11.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2022 한교연 부활절메시지



할렐루야!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온누리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의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안겨주셨지만 세상은 여전히 깊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공포가 2년이 넘도록 가시지 않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으로 전쟁의 어두운 그늘이 전 세계에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뒤에는 고난과 희생, 단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육신의 고난과 절고를 몸소 견디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을 담당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찬란한 빛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년간 예배를 접해당해 왔습니다. 통제 위주의 방역 정책의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예배의 거룩성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헌법이 명시한 신앙의 자유를 짓밟고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해 드

리는 예배마저 정치방역의 도구로 전락시킨 정권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신다”(삼상2:10)고 말씀하셨기 때 문입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예배의 거룩성을 회복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안에서 매대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입니다. 이기심, 탐심, 교만을 몰아내고 내 안의 성전부터 정결해져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광 진리의 예배로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 러시아군이 민간인에게 저지른 잔학 행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를 침범한 것도 잘못이지만 전쟁 중에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고 국회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 연설했습니다. 이는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다시 일어난 대한민국이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웃 나라에 굳건한 지지와 연대를 표시한 것이기

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 정부도 인 수위와 협력해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강도 만난 이웃인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임하심으로 전쟁이 속히 끝나고 주님의 평화가 넘치는 나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이 자유를 잃고 최악의 인권 탄압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생명을 바쳐 선포하신 ‘살렘’이 북한 땅에 임해 저들이 핵무기와 적화약육을 포기하고 한반도가 주님의 은혜로 자유, 복음, 통일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부활의 증인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유, 평화와 강같이 흐르는 나라, 갈등과 분열, 편 가르기가 없는 나라, 동성애, 차별 금지법으로 국민을 역차별하지 않는 나라로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사명을 바로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부활의 찬란한 영광으로 이어진 것처럼 한국교회가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나 생명 있는 겨자씨가 될 때 예배가 회복되고 30배 60배 백배의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새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매일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기총, 2022년 2차 임원회(긴급) 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는 30일(수) 오후 3시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2022년 2차 임원회(긴급)를 열었다. 회의는 회원점명 결과 58명 중 33명 참석, 12명 위임으로 성수가 되었다.

개회 후 전회의록채택 과정에서 지난 2022년 1차 임원회의 하자 문제(성원으

로 보고되지 않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원 7명이 표결에 참여한 절차상 하자과 무기명비밀투표로 진행되었음에도 일부 임원들이 타인에 대한 투표 중용행위, 공개투표행위, 고성을 지르는 행

위 등이 확인)를 논의하던 중 일부 임원들의 소란으로 정회와 속회가 반복됐다. 그 과정에 2명의 임원이 퇴장하여 31명 참석, 12명 위임의 상태에서 하자치유를 위해 긴급임원회를 진행하자는 1안과 하자가 있더라도 관행에 따라 문제 삼지 말자는 2안에 대해서 거수로 투표하기로 하고, 의장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

며, 홍재철 목사는 의사진행 방해로 퇴장 명령을 받아 투표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투표한 결과 1안에 17명 찬성, 2안에 10명 찬성, 기권 2명으로 1안이 가결됐다.

일부 임원들이 재차 퇴장하여 다시 회원을 점명하니 55명 중 22명 참석, 12명 위임으로 성원이 됨을 확인했다. 전회의록(제32-2차 임원회 회의록)과 보고서항으로 임원회 관련 이의서 보고, 윤리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이단사기비대책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업무협약 관련 보고, 기관통합 현황 보고를 유인물대로 받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공동회장 김상진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김병식 목사가 기도하고, 증경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베드로후서 1장 7절을 본문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회의는 공동회장 이용은 목사의 기도로 폐회했다.

축 부활 2022년 예정(합동보수)총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11:25)

증경 총회장	직전 총회장	총 회 장	부총회장	서 기	부 서 기	회의록서기	부회록서기	회 계	부 회 계	총 무
강대일 목사 평안교회	서동기 목사 소망교회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정요셉 목사 원흥교회	서재식 목사 동성향교회	천종록 목사 언약교회	김주현 목사 불라델리아교회	배영자 목사 금전시온교회	송인섭 장로 양문교회	강대섭 장로 평안교회	박용순 목사 화국향교회

본 총회는 뜻을 같이할 목회자, 교단,
기관의 가임을 환영합니다.

사단법인 : 예정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 : 이규필 목사

총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가산동]

☎ : 02)854-1326. Fax 02)496-0181 H.P. 010-7474-3173

靑松 건강칼럼(845)... Cholesterol Day

꿀벌이 사라지면...



靑松 박명윤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靑松 건강칼럼(762)... Cholesterol Day
콜레스테롤(Cholesterol)과 건강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그 많던 꿀벌은 어디로 갔을까? 전국에서 양봉농가의 별통에서 꿀벌이 자취를 감추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양봉협회(韓國養蜂協會)가 최근 협회 소속 2만3582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7.6%인 4173 농가에서 봉군(蜂群) 소실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 77억 마리 이상의 꿀벌이 사라졌다. 지역별로는 전남에서 봉군 10만5894개가 소실돼 가장 큰 피해를 봤으며, 이어 전북(9만개), 경북(7만4582개), 경남(4만5965개) 순이었다. 지난해 약 558억마리의 꿀벌이 사육했는데, 14%가 폐사했다. 작년 2~4월 이상 고온으로 아카시아(Acacia)가 조기 개화했고, 개화기가 10일가량 짧아져 벌이 꿀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준 것이다. 벌이 아카시아꿀을 충분히 먹지 못하여 면역력이 떨어져 폐사가 늘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이번 꿀벌 실종 현상은 해충의 일종인 꿀벌응애와 말벌로 인한 폐사, 이상기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 봉군(蜂群)에선 대부분 응애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사양(飼養)꿀과 로열젤리(royal jelly) 생산 후 적기 방제(防除)를 하지 않은 탓이다.

일부 농가는 응애류 방제 과정에서 약제를 과도하게 사용해 제대로 발육이 안 된 꿀벌이 폐사했다. 경북에는 5,299농가에서 벌을 키우는데, 국내 전체 양봉농가의 19.2%를 차지한다. 경상북도는 벌꿀 생산 기반 안정을 위해 109억4,000만원(자부담 40% 포함)을 들여 피해 농가에는 벌 입식비를, 전체 양봉 농가에 진드기 구제 기능이 있는 소초광(밀랍으로 만든 벌집틀), 면역증강제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신품종(장원벌)을 연간 2,000군 보급하고, 병해충 예방을 위한 면역증강제 등을 확대 공급하는 등 품종개량과 병해충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공주 '치유의 숲'에서 제77회 식목일 기념행사를 열고

밀원수, 경제수 등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도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까시나무, 헛개나무, 산딸나무, 산수유 등 꿀벌의 먹이가 되는 밀원수(蜜源樹) 4종 600그루를 1ha에 걸쳐 심었다. 충남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77.9ha의 밀원수를 조성했으며, 올해는 15개 시·군 542ha에 146만9000그루의 밀원수를 심을 계획이다.

정부는 양봉산업 지원을 위해 2019년에 '양봉산업법'을 제정하여 국유림을 중심으로 아까시나무(아카시아) 등 밀원수(蜜源樹)를 연간 150헥타르(ha)씩 심기로 하였다. 북미(北美)가 원산지인 아까시나무(black locust)는 6·25전쟁 이후에 산림녹화를 위해 대량으로 심었으며, 서울 마포구 난지도(蘭芝島)에 공원을 조성할 때도 제일 먼저 심었다. 우리나라의 주요 꿀은 아카시아꿀이기 때문에 아카시아 꽃이 피는 철에는 벌들이 전국적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뉴질랜드(New Zealand)의 경우 밀원수 조성을 위해 마누카(Manuka)조림지 조성사업을 펼치고 있다. 마누카나무 꽃에서 채집되는 '마누카 꿀'은 항균작용 성분이 풍부해 액체로 된 금(金)으로 불린다. 뉴질랜드 정부의 밀원수 조림은 브랜드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꿀 수확에 크게 기여했다. 이에 채집된 꿀의 종류와 부가가치는 어떤 밀원수를 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인간은 벌꿀을 선사시대(先史時代)부터 채집해 먹었다. 스페인의 한 동굴에는 인간이 벌꿀을 채집하는 모습을 그린 8천년 된 벽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약 2천년전 고구려 태조대 중국에서 꿀벌을 가지고 와서 기르기 시작했으며, 백제 태자(太子)가 643년 꿀벌 4통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가 양봉 기술을 전했다. 삼국시대의 양봉은 토종벌을 활용한 것이며, 현대의 양봉(서양꿀벌, 洋蜂)은 '구결근(具傑根)'이란 한국이름을 쓴 독일인 카니시우스 쿨겔겐(1884-1964) 신부가 서양 양봉기술을 가르쳤다.

꿀은 꿀벌의 면역을 높이는 중요한 먹이원으로, 양질의 꿀을 먹지 못하며 자란 일벌은 면역이 약화돼 질병과 해충에 대응하지 못한다. 꿀벌들이 1kg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치는 꽃은 약 400만 송이이며, 총 이동거리는 140만km이다. 꿀벌의 행동반경은 직선거리 2km 정도로 꽤 먼 곳까지 날아간다. 이에 꿀벌의 식량인 화밀(花蜜, 꽃꿀), 즉 꿀을 분비하고 화분을 공급해주는 밀원식물의 수를 늘려야 한다.

'꽃꿀'을 '벌꿀'로 만드는 과정에서 벌의 소화효소가 꽃꿀을 만나면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는 식품이 된

다. 꿀은 코, 인두, 후두 감염성 염증 질환에 효능을 보인다. 또한 풍부한 미네랄과 비타민 덕분에 피로 회복,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좋다. 술 마신 다음 숙취(宿醉)해소용으로 꿀물을 마시기도 한다. 꿀은 개봉 후에 직사광선을 피해 상온에서 보관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벌이 꿀을 빨아 오는 원천이 되는 식물이 많은 지역의 감소 등으로 벌떼 전체가 사라지는 군집 붕괴현상(Colony Collapse Disorder)이 발생하고 있다. 2006년부터 군집붕괴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미국에서는 2015~16년 벌떼가 28.1%가 감소했다. 현재 지구촌 야생 벌 약 2만 종 가운데 40%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2035년쯤 꿀벌이 멸종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꿀벌이 멸종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2017년 12월 유엔(UN)은 벌을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 벌의 날(World Bee Day)'로 제정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매년 8월 셋째 주 토요일을 '꿀벌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 토론회 투표로 꿀벌·플랑크톤(plankton)·박쥐·균류·영장류(靈長類) 등을 '지구상에서 절대 사라져서는 안 될 5종'을 선정했으며, 꿀벌이 1위로 뽑혔다.

꿀벌 소실은 단순히 벌꿀(honey)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의 71%는 꿀벌을 매개로 수정(受精)을 한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선 주요 작물 75종 가운데 39종이 꿀벌을 통해 화분 매개가 이뤄진다. 이에 꿀벌이 멸종하면 농산물 생산량이 지금의 29%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란 연구 결과도 있다.

농작물 중에서도 사과, 딸기, 양파, 당근, 호박 등은 90% 가까이 꿀벌의 꽃가루받이에 의존하고 있으며, 불포화지방산과 비타민E가 풍부한 아몬드(almond)는 무려 100% 꿀벌이 꽃가루받이를 해준다.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이 자라는 데 꼭 필요한 4가지는 햇빛과 물, 영양분, 그리고 꽃가루받이(pollination)를 해주는 꿀벌이다. 꿀을 찾아 꽃 안으로 들어간 꿀벌이 꽃가루를 몸에 묻히고 다른 꽃에 있는 꿀을 먹기 위해 이동하면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을 만나 암술대를 통해 밑씨(ovule)를 만나 수분(受粉)이 되면 씨앗이 생기고 열매가 맺힌다. 이에 꿀벌이 없어진다면 이런 식품들도 같이 사라질 수 있다.

같은 농가에서는 꿀벌 실종 사태로 인하여 꽃가루받이(수분)에 필요한 꿀벌 공급이 부족해 애를 태우고 있다. 국내 수박재배 농가 가운데 약 90%가 꽃가루받이에 꿀벌을 이용한다. 3월 중순에 수박재배 비닐하우스 한 동당 꿀벌 봉군(蜂群) 한통을 넣어야 하는데 필요한 절반도 구할지 못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다. 대략 꿀벌 2만마리가 1개 봉군을 이루고 있다. 꿀벌을 구하지 못하면 외국인 근로자(일당 18만원)의 손으로 일일이 꽃가루받이를 해야 한다. 열매채소는 벌을 이용해 꽃

가루받이를 하는 게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또 기형 발생을 줄이고, 당도(糖度)가 높은 열매를 생산할 수 있어 상품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이에 국내 수박농가의 90%, 참외농가의 80%가 꿀벌을 이용해 꽃가루받이를 하고 있다. 사과, 자두, 복숭아 등 과수농가도 마찬가지다.

미국 하버드대 새뮤얼 마이어 교수는 국제 의학학술지 랜싯(The Lancet)에서 "꿀벌이 사라지면 식량난과 영양실조로 한 해 142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꿀벌이 사라지면 먹이 사슬에 영향을 미쳐 지구 생태계의 균형이 붕괴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식물에 열매를 맺지 못해 사라지고, 그러면 초식동물(草食動物)이 대규모로 멸종될 것이다. 또한 벌을 먹는 새들도 사라지고, 초식동물을 먹는 고등 동물도 사라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穀物自給率)은 22.5%로 세계 최하위를 뺄뎠고 있다. 이에 수입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밥상 물가에 타격을 준다. 우크라이나(Ukraine)의 곡물자급률은 302.8%이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자 시리얼, 소면 등 곡물 가공식품도 가격이 치솟고 있다. 최근 5개월간 전년 대비 3%대 물가 상승이 이어졌으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10년 만에 소비자가 물가 상승률이 4%를 돌파했다.

꿀벌의 실종에 대해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 벌집에서 꽃가루, 밀랍, 애벌레 등을 수집하여 꿀벌이 사라지는 이유를 추측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의심한 것은 꿀벌을 해치는 해충, 즉 꿀벌의 몸에 붙어 피를 빨아들이는 진드기와 꿀벌의 몸 안에 사는 기생충 등을 관찰해 봐도 특별한 차이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다만 군집붕괴현상이 나타난 벌통의 벌들은 여러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는 사실은 발견할 수 있었다.

산업화된 농장으로 아주 넓은 땅에 한 가지 작물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농장에서 자라는 벌들은 한 가지 꽃의 꿀만 먹을 수밖에 없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더 큰 문제는 농장에서 해충으로부터 작물을 지키기 위해 농약(農藥)을 많이 사용한다. 실험실에서 꽃가루를 관찰한 결과, 평균 다섯 종류의 농약 성분이 발견됐으며, 땅에는 열일곱 종류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물론 벌을 기르는 양봉농가에서도 벌을 괴롭히는 진드기를 없애려고 농약을 쓰기도 한다. 따라서 작물 수정을 돕는 꿀벌이 없으면 안정적인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다. 산업화된 농장으로 아주 넓은 땅에 한 가지 작물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농장에서 자라는 벌들은 한 가지 꽃의 꿀만 먹을 수밖에 없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더 큰 문제는 농장에서 해충으로부터 작물을 지키기 위해 농약(農藥)을 많이 사용한다. 실험실에서 꽃가루를 관찰한 결과, 평균 다섯 종류의 농약 성분이 발견됐으며, 땅에는 열일곱 종류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물론 벌을 기르는 양봉농가에서도 벌을 괴롭히는 진드기를 없애려고 농약을 쓰기도 한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박명윤 칼럼(22-21)

종려/고난 주일



화사한 봄꽃들로 단장되어 있는 신촌 연세대학 교정에 위치한 연세대학교교회(Yonsei University Church) 11시 예배에 아내와 함께 참석했다. 부활절(4월 17일)을 일주일 앞둔 주일인 오늘(4월 10일)은 종려주일(棕櫚主日, Palm Sunday)이며, 11일부터 부활절 전날인 16일까지는 고난주간(苦難週間, passion week)이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 승리 등을 상징한다.

예수님께서 이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며,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고난주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로,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부활 직전까지의 1주일을 말한다.

연세대학교교회는 내일(4월 11일, 월요일)부터 14일(목)까지 고난주간 새벽예배를 6시부터 루스체플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린다. 그리고 15일(금) 오후 3시에는 '성(聖)금요일(Good Friday) 예배'를 대학교회, 연세대 교목실, 음악대학이 공동으로 루스체플에서 드린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은 더욱 경건하게 보내며 금식(禁食)을 하기도 한다.

곽호철 담임목사(연세대 교목/교수)가 인도한 주일 예배에서 백소영 박사(강남대학교 교수)가 '새끼 나귀를 탄 임금님(The King ridden on a young donkey)'을 제목으로 설교(sermon)를 했다.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 장정권 카운터테너(counter tenor)가 헌금송(offertory music)으로 종려나무(The Palms)를 불렀다.

교인들은 함께 헌신의 기도(dedicatory prayer)를 드렸다. "새끼 나귀 타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찬송합니다. 말을 탄 자, 물리적 힘과 부요함과 권세 가진 사람들이 약자들을 짓밟고 억누르는 세상의 '당연'을 멈추는 일에 우리도 참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끝난 후 오랜만에 만난 교인들과 정담게 인사를 나누었다. 대학교회는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부분현장에 배를 드리므로 교인들이 전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가족과 함께 왔으며, 윤 회장 손녀는 교회학교 유치부에 속하여 유치부 교사인 우리집 막내딸과 즐거운 만남을 가졌다. 다음 주일에는復活節 절기 헌금을 드린다.

다음호에 계속

★ 한국교회 희소식 ★

요즘 구하기 힘든 자가진단키트를 한국교회 예배의 성공을 위해 택배비 정도만 남기고 드리려고 합니다. ★국산제품 중 최고 좋은 레피젠 제품과 SD바이오 제품 보유중

세계최강! 세계최초! 유성(안료)잉크
높은 생산성과 경제성의 컬러주보 복사기

컬러복사기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검정 50,000매, 컬러 20,000매의 대용량 잉크팩이 장착된 세계최강, 세계최초의 유성(안료)잉크를 사용한 획기적인 컬러주보 복사기입니다.



제품 특징

- 1. 3단 6면주보 출력
- 2. 4단 8면주보 출력
- 3. 60cm 배너 출력
- 4. 주보 양면 연속 출력 (카세트 A4주보)
- 5. 현금봉투, 소봉투, 대봉투 출력
- 6. 후면 급지대(80매 적재)

인터넷 최저가대비
50만원
저렴!

199만원 99만원
※ 금번 주문하신 분에 한하여 LED 십자가 1박스(20개)를 드립니다

효율성

- PC없이 스캔파일을 자유롭게 전송
- 중요한 문서는 비밀번호 설정으로 보호
- 물에 번지거나 용지가 휘지 않음
- 1989년 창업의 30년 노하우 제공
- 신속, 정확한 A/S로 업무의 원활함 극대

생산성

- 128cm의 대형 컬러 터치패널
- 동급최강의 빠른 출력속도 (24~34매)
- 검정 5만매, 컬러 2만매 대용량 잉크팩
- 세계최강, 세계최초의 유성잉크 사용
- 대용량 용지급지함 지원

경제성

- 자동양면인쇄 및 양면스캔 지원
- 경제적인 슈퍼대용량 잉크카트리지 채택으로 유지비용 절감
- 소모품비용 획기적 절감(90%)
- 기존 컬러복사기의 1/10 비용 소요

초강력 공기 정화기

쿠팡 히트 상품을 교회에 한해서 1+1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기술의 퓨리어와 함께라면 당신이 숨쉬는 그곳이 바로 자연입니다.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 사냥꾼 '퓨리어'



Why! 퓨리어인가?

-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초강력 중화제거
- ▶ 양이온(오염원공기, 전자파, 매연) 중화제거
- ▶ 오미크론 바이러스 교통수단 차단
- ▶ 각종 악취가 서서히 사라지는 쾌적한 기분
- ▶ 천식, 비염 1~2회 체형 강력추천 & 절대적 반응
- ▶ 깊은 산중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하게 되는 느낌!

소비자가격 396,000원

KBS추적60분에서 확인된
세계 최초 순수음이온 칩 장착
'PUREIR'에 장착된 핵심 칩은
철저히 검증된 제품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 벤처기업과
KAIST INC기술 공동개발 칩 내장

'PUREIR' 공기정화기의 특징

- ▶ 측정수치와 반응이 눈에 보이는 공기정화기
- ▶ 철저히 검증된 세계적 기술의 핵심 칩 장착
- ▶ 필터에 월 100원의 전기료가 전부
- ▶ 거실, 방, 사무실 등 이동이 간편한 퓨리어!
- ▶ 초강력 공기정화와 소중한 자연의 느낌까지

퓨리어가 필요한 곳

교회, 기도실, 침실, 수형생, 사무실, 컴퓨터앞, 애견방, 미용실, 측사, 어린이집, 병원, 노래방, 오락실, 유흥업소, 주점, 식당 등

1개월에 한번만 음이온 발생부 / 제품 뒤 백면 50cm 이내 청소만 관리 끝! (관리방법 : 홈페이지참조)

홈페이지 www.sulayeon.com

하나님의 인(印)은 십자가인가?

Is the seal of God on the forehead a cross?

- 서사라 목사 인(印)사역에 신학적 평가 -

Theological Evaluation on Pastor Sarah Seoh's ministry for the seal of God



권호덕 박사

이마에 친 '하나님의 인(印)'은 '십자가'인가? 이는 서사라 목사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소위 '인(印)사역' 중에 영안(靈眼)으로 잡힌 회개자들의 이마에 천사들이 먹물로 십자가를 그려주는 장면을 보았다고 했는데 과연 이 문제가 성경적인가? 이다. 권호덕 교수는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심도 있게 평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논문을 하나 저술했다. 이러한 부흥 운동이 과연 성경적

인지 또는 종교개혁신학적인지 학문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한다. 또한 권호덕 교수가 매우 놀라워한 것은 서사라 목사가 '인(印)사역' 중에 영안(靈眼)으로 본 그 장면은 에스겔 9:3절 이하에 기록된 장면과 너무도 똑 같다는 것이다.

에스겔 9:4-4절에서는 "그중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러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움을 입고 서기관과 먹 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권 교수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그가 이전에 구약학자인 고(故) 최의원 박사가 자신이 번역한 순수 우리말 성경인 '새즈른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에스겔 9:4절에 나오는 이마의 인이 고평표(표)로 번역했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최 박사는 또 구약성경에서 유일하게 십자가가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것이다. 최 박사는 제 2판에서 이것을 덧셈표(+)로 번역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최 박사는 2판이 나오기 전인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서사라 목사의 인 사역의 근거인 요한계시록 7장이 에스겔서 9:3-4절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 목사는 그 인(印)이 '십자가'라고 증거하고 있다. 권 교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마에 친 인(印)이, 최의원 박사가 말한대로, 십자가인가를 규명하려고 논문을 시도한 것이다. 권 교수는 먼저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을 살펴 보았다. 최의원 박사의 번역본을 제외한 모든 모든 한글역본들은 이 인(印)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외 영어 번역들이나 루터 성경, 화란어 성경 70 인경, 발 게이트 등 대부분은 이 인(印)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독일 어권에서 매우 권위 있는 스위스 '조리히 성경'은 그 인(印)을 '십자가'로 번역했음을 지적했다.

그 다음 권 교수는 여러 가지 주석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주석했는가를 살펴보았다고 한다. 에스겔서 9:4절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그 이마에 타우를 그리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맨 마지막 글자이다. 타우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의 이마에 이것을 그리게 했을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 성경은 이 타우를 'U'라고 표기한다. 문제는 이것은 전혀 십자가와는 거리가 멀다는 데에 있다. 권호덕 교수는 상당히 많은 주석가들이 이 인(印)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넘어가지 않았음을 주목했다.

그런데 중요한 주석가 몇 명은 이 인(印)을 십자가로 해석했음을 지적한다. 독일의 유명한 카일-텔리 쿨는 유대인으로서 루터교인이 된 사람으로 히브리어

에 대한 대단한 식견을 가진 구약 주석가로서 히브리어 변천사를 아는 자였다. 나아가 권 교수는 NCNT 주석 시리즈의 요한계시록 주석자인 Daniel Block, 'The Americal Commentary' 시리즈의 에스겔서 주석자인 Lamar Eugene Coope, 그리고 'The Anchor Bible' 주석 시리즈의 에스겔서 주석자인 M. Greenberg도 이 인(印)을 '십자가'로 주석했음을 주목한다.

그는 또 고(故) 최의원 박사가 히브리인들이 십자가를 삶여하기 때문에 히브리어 문자를 현대 문자로 바꿀 때 고대(古代)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문자인 타우인 십자가를 얹었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 버렸다고 한 말을 기억했다고 한다. 그리고 권 교수는 에스겔서의 여러 가지 주석서들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독일 유학 시절에 히브리어 교제 곧 히브리어의 대가였던 Ernst Jeni가 저술한 히브리어 문법책이 생각나서 한번 들여다 보니 히브리어 변천사에 대한 도표를 재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도표를 의하면 에스겔 시대의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로 현재 히브리어 성경(BHS)에 사용된 히브리어 문자와는 다르고 타우가 엑스(X)로 표기되어 있었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대 히브리어 문자의 뿌리가 되는 페니키아어에서는 타우는 덧셈표(+)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십자가에 더 가깝다. 권 교수는 이런 결과를 보고서 서사라 목사가 영안(靈眼)으로 본 것 곧 검은 옷을 입은 천사들이 회개하는 자들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나아가 권 교수는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에스겔 시대에 보여주었던 내용이 약 2,000년 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고, 지금 다시 서사라 목사에게 보여준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음을 지적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기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긴급하게 요청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그는 또 서사라 목사의 사역에 있어서 두 가지 강조점을 보았다고 한다. 하

나는 회개이고, 다른 하나는 선교이다. 권 교수에 의하면 서 목사의 모든 저서들은 지옥 가는 사람을 회개시켜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관심을 집중시킨다. 그리고 그녀가 세계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예수의 공생애의 첫마디가 '회개하라'이고 맨 마지막 말은 '선교하라'는 것을 지적하며 서 목사의 사역이 바른 방향으로 향함을 말한다. 그는 지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권 교수는 서 목사가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 사이의 구별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도 평가했는데, 권 교수는 그동안 이 두 가지 주제는 개신교 신학계의 관심거리가 되지 못했음을 언급하며, 연구해본 결과 두 가지가 서로 구별됨과 아울러 '하나님의 인'은 환난 시기에 큰 의미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별히 주목할만한 것은 권 교수에 의하면 하나의 신학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동산 그것이 교회의 삶에 도움을 주는지를 살피고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성경 본문을 다시 연구하여 바른 신학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개혁신학의 생리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일 그 신학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집하고 그 신학으로만 계속 성경을 해석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이데올로기에 빠진 실수를 범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상숭배로 전락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권호덕 교수는 서사라 목사가 자기 저서가 계속 신학적인 평가를 받기를 바라는 자세가 있음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다. 이것은 그녀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권 교수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교회 운동을 비판할 때, 직접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읽고 엄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나 나도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학문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한다. 그는 또 새로운 부흥운동을 인도하는 사람의 신앙인격을 먼저 점검하는 동시에 그의 발언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지 점검한다면 신학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교회 신학의 공정한 평가가 요청된다고 말한다.

성경해석의 새 지평

서사라 목사 저서에 대한 신학적 평가 (추천)

이 책은 권호덕 교수가 서사라 목사의 저서를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권호덕 박사(조직신학)

▷ 총신대학교 신학과(B.A.)

▷ 총신대 신대원(M.Div., Eq.)

▷ 독일 뮌스터대학교 신학석사

(Mag., the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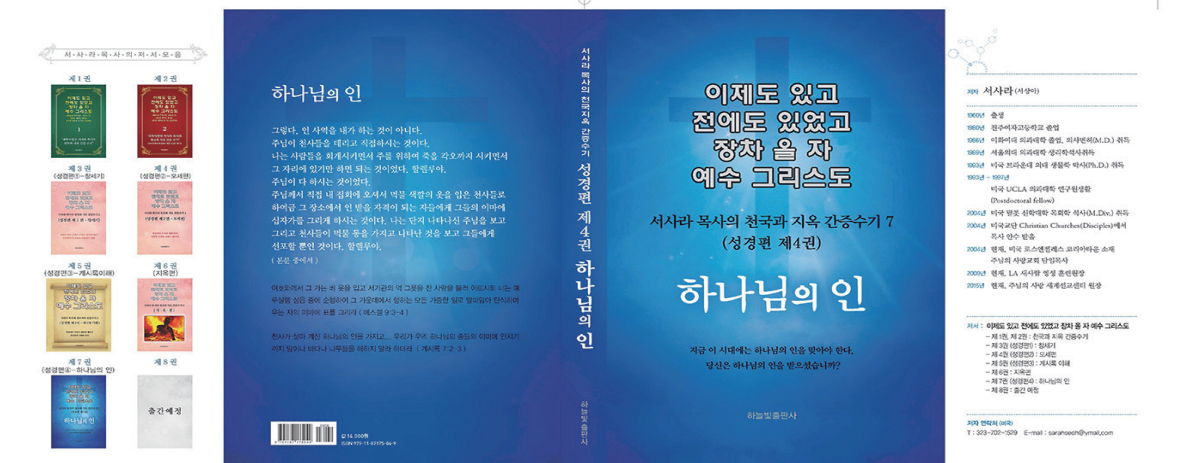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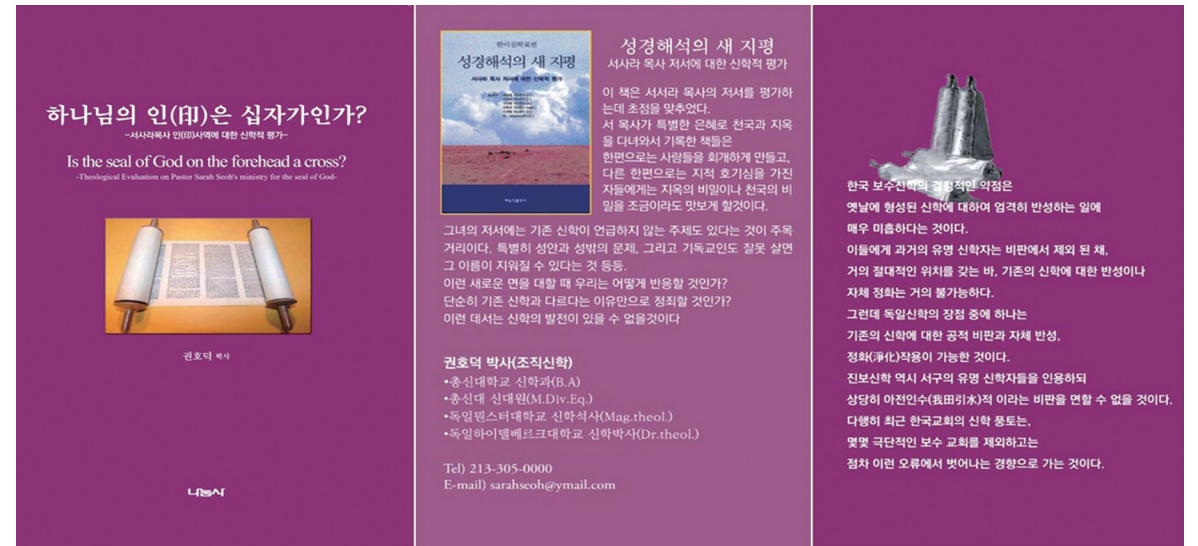
▷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신학 박사(Dr.theol.)

피종진 목사 초청 4월 부흥성회



피종진 목사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T: 02)3411-9191 F: 02)401-7770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 | | |
|-------------|--|
| 6(수) 오전 | 대한예수교장로회동서울노회(노회장박진석목사)중경노회장MT |
| 7(목) 오전 | 충남 아산은혜교회(이은혜목사) 010-8365-2456 |
| 11(월)~14(목) | 제6차 한국교회 중직자를 위한 영적 각성 제주 컨퍼런스 |
| | 장소: 제주 삼해원 관광호텔 특별 Hall |
| 18(월) 오전 | KAICAM 제45회 목사 안수식 장소 할렘루아교회(김승욱 목사) |
| 18(월) 오후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동서울노회(박진석 목사) |
| | 장소 서울사랑교회(오정현 목사) (02) 3495-1001~4 |
| 21(목) 오전 | 이천시 주님의 사랑 세계 선교센터(대표 서사라 목사) 031-641-0691 |
| 21(목) 오후 | 인천소망교회(황귀례목사) 010-4423-2838 |
| 22(금) 오전 | 서울신학교(학장 김준환 목사) 주최 World 기독교 총연합회 |
| | (설립대표 정진희 목사 대표총재 정도출 목사) 010-7567-8291 |
| 24(주) 저녁 | 상주 외남교회(장승규 목사) 010-5242-6389 |
| 25(월) 저녁 |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원장 김원철 목사) |
| | 주최 World 기독교총연합회 대표고문 피종진 목사 설립대표 정진희 목사 |
| | 대표총재 정도출 목사 010-7567-8291 총재 정경표 목사 |
| | 인천 영화교회(오영화 목사) 010-8814-3722 |



서사라 목사 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SINCE 1983.6.13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정

축 2022년 부활

에배의 시간을 문의 하시는 분들은 아래 주소에 전화들 돌려주세요
친절하게 안내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멀티사이트 교회
The Multi Site Church

http://www.mokpojung.com

교회를 섬기는 분들

부목사 : 모정선 박민수 모항민 모성은 전도사 : 추정희 정순말(교육)

시무장로(13인) 협동장로(2인) 은퇴장로(3인) 무임장로(1인)

파송선교사: 임재선 김은미(베트남) 안윤기 김진희(캄보디아)

신길현 백현주(미얀마) 송영관 최문정(태국)김미경(아프리카M국)

김경환 송선아(남아공) 강새롬(인도네시아) 편광소아이(베트남다낭)

목포주안교회 :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전화/061-272-4908, 276-1006

남악주안교회 :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 60번길 17 전화/061-287-0692

용해주안교회 : 목포시 용해지구로 61(연산동) 삼양빌딩 301호 전화/ 061-277-0691

| **종말, 타작심판 22** |

공간이 부서지고 소 때가 방황할 때 기도로 무장하고 의복과 약 처방하라

(지난 시간 이어서)

iv. 타작마당(심판) 때를 알자!

1) 창 30:14~24절 ‘밀 추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자귀나무를 찾아 어미 레아에게 가져오자,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언니 아들의 자귀나무를 내게 달라.” 하더라.

15 레아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나?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자귀나무도 빼앗고자 하느냐?” 하니, 라헬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언니 아들의 자귀나무 일로 인하여 오늘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더라.

16 저녁 때 야곱이 들에서 오니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반드시 내게로 들어와야 하는 도다. 이는 내가 분명히 내 아들의 자귀나무로 당신을 빌렸음이라.” 하니 그가 그날 밤 레아와 동침하였더라.

17 하나님께서 레아를 들으셨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다섯째 아들을 낳았더라.

18 레아가 말하기를 “내가 내 여종을 내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내 샅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잇사갈이라 하였더라.

19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여섯째 아들을 낳았더니

20 레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선물을 주셨도다. 내가 내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블룬이라 하더라.

21 그 후에 그녀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22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니

23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치욕을 제거하셨다.” 하고

24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부르고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해 줄 것이라.” 하더라.’ 아멘.

참고, “깁=자귀나무” “개=합환채”로 되어있다. 합환채 이것은 해=> “두 다임”이다. 이는(사랑의 사과) 그런 뜻이다. 그런데 오양이 감자류에 속한 것이라고 한다. 특히 이 합환채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자라는 것이다. 그 열매는 약간의 독성이 있고, 뿌리는 인삼과 같다. 그런데 그 합환채를 먹

으면 남자에게는 정육제가 되고, 여자에게는 임신 촉진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草食의 열매는 5월경, 보리 추수할 무렵에 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풀인 합환채에 대해서 비밀을 알고 있는 여인이 누구인가? 「라헬」이다. 성경을 보면 또한 신비스럽다, 라헬은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욕의 남편인(야곱)을 언니에게 주고, 라헬은 합환채를 자신이 가졌다.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요셉」이다.

다시 말해서 라헬은 그 합환채를 통하여 요셉을 낳았다. 그렇다면 라헬이 그 합환채를 어떻게 했기에 요셉을 낳았을까요?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은 라헬이 그 합환채를 삶아먹고 요셉을 낳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삶아먹지 않았 다. 다만 그것을 빼앗아서 먹지 못하게 하는데서 요셉을 낳은 것이다. 만일 그 합환채를 삶아 먹고 자식을 낳았다면, 그것은 정육적으로 낳은 자식이 되는 결과가 온다. 정육적으로 낳았다는 것은 육적으로 낳았다는 결과가 된다. 여러분! 요셉은 절대로 육적으로 정육적으로 낳은 자식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지난 시간 이어서 말씀을 전한다. 여기서 합환채를 삶아 먹었다면 큰 일 난다. 여기서 거룩한 맥이 요셉이고, 또한 라헬은 거룩한 교회의 표상이 된다. 만일 그 합환채를 삶아 먹어야 한다면, 라헬보다, 선배인 사라가 삶아 먹어야 할 것이다. 사라가 늙어서 힘이 없으니까, 그 정육제를 사라가 삶아 먹었어야 옳을 것이다. 그런데 왜 라헬이 이것을 삶아 먹었다고 하는가? 그러므로 그 합환채를 삶아 먹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라헬이 합환채를 삶아 먹고서 요셉을 낳았다고 하면, 요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이유는 육적인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에서 요셉의 사건을 자세히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아셨기에 그를 성태케 했다. 그래서 요셉을 낳은 것이다. 그러므로 요셉은 육적인 것, 합환채를 먹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합환채와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루우벤은 육적인 자식인데, 이 합환채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먹여서, 어머니가 정육이 왕성해 지면, 자기 어머니

정기남 목사

편집인



에게 이상한 것을 하려고 한다. 르우벤이 짐승만도 못한 행동을 취하려고 할 때, 바로 그때에 그 비밀을 알게된 라헬이 합환채를 가로챘 것이다.

야곱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뭉쳐진 자이다. 야곱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뭉쳐진 자이다. 야곱은 성령으로 뭉쳐진 자이다. 그래서 야곱은 환난을 통과한 정상적인 모형이다. 우리는 바로 야곱의 표상이라 하겠다. 야곱은 공짜로 먹은 것이 한가지도 없다. 나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옷의 의미는 신앙을 가리킨다. 또한 옷은 믿음을 가리킨다.

또한 옷은 착한 행실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준비할 것은 마지막 때에 입을 의복을 준비해야 한다. 의복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고 만다. 마 22:12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이 나온다’ 그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결과 손과 발이 묶이고 바깥 흑암에 던져짐을 당한다. 손과 발이 묶여서 흑암에 던져짐을 받으면서도 그는 한 마디도 말을 못하고 거기 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고 했다. 주께서 그에게 옷을 준비하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준비하지 못한 것은 할 말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을 통하여 옷 준비하라고 일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옷 준비를 못했다면 분명코 쫓겨나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쫓겨나도 말 한마디 못할 때가 온다. 마 22:12-14절까지 다 함께 읽겠다.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야, 그때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었느니라.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져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았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 고 하시니라.” 아-멘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목양칼럼 30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나호에 이어서

28. 두 번 죽어야 성결의 은사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후가데스바네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약속)을 믿고 순종했다더라면, 약속과 축복과 성결의 땅인 가나안에 10일 안에라도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앙의 죄로 인해 40년의 광야생활을 한 후에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믿음의 행진을 했더라면 한 번의 홍해를 건너 체험으로도 육로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불신앙의 죄로 인해 40년의 광야생활을 했고 결국은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홍해를 건너 의미는 신약에서는 세례를 의미하고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것을 의미합니다.

29. 성결의 은사(새 언약, 성령세례)를 받지 못하는 이유

“형제들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고전 10:1-2).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롬 6:3-4).

우리는 홍해에서 한 번의 죽음(세례)을 체험함으로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귀의 종 노릇하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음으로써 죄와 사방의 법에서 해방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어린 믿음으로는 이 같은 진리를 다 깨닫지 못하고, 단지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신을 구원했다는 사실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첫사랑을 경험하고 모든 일에 주님을 의뢰하여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형통한 신앙생활로 인해 천국

을 맛보며 기쁨과 감사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체험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다시 고개를 쳐든 죄로 인해 실패와 좌절과 갈등을 겪으며 고통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 거듭날 당시는 신앙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자기 보좌에 모시고 자신은 그분의 발 밑에 앉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따랐지만, 어느덧 세월이 지나 신앙을 알고 영적 체험을 하고 영적인 지식이 늘어나니까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교만으로 인해 자아가 살아나고 자신의 보좌에 도로 자신이 앉고 주님 은 자신에 발 밑에, 모든 일에 주체는 자신이 되어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주님을 부러먹는 신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자기 노력을 생명을 다해 해 본 결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는 고백과 동시에 자신은 죽은 자와 같은 죄인이요 병든 자요 상한 갈대라 꺼져 가는 심지와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선을 행하거나 악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다시 한번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요단강을 건너 체험이며 이 체험을 한 후에야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첫사랑을 회복하여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요 이것이 성결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이후로는 자신의 자아는 철저히 부인되며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겸손한 신앙이 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홍해에서의 죽음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서의 구원과 요단강에서의 죽음은 자아의 죽음을 맞이하는 구원입니다. 모두가 이 두 번의 죽음을 체험함으로써 약속과 축복과 성결의 땅인 가나안에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미움이 죄임을 깨닫고 자신은 이제껏 미워하는 죄를 범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죽음이고, 이제 열심히 미움을 버리려는 노력을 통해 자기의 힘이 다 빠져 자신은 죽은 자와 같은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노력으로는 이 죄를 버릴 수 없음을 알고 주님께 항복하는 것이 두 번째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고, 이 체험 후에 주님을 의지하여 미움을 버릴 때 가나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결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아직 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결의 은사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결의 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

도 성결의 은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며 그 사실을 믿을 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롬 8:32). 은사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고 하심 같이 우리는 성결의 은사를 위해 기도했고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하나 여전히 받은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럼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신이 체험하지 않은 것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체험한 사실만 믿으려 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이 체험은 반드시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체험의 근거가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로 교만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롬 9:16). 결국 교만한 사람은 성결의 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쓰듯이 100원을 드리며, “가사예 보태 쓰세요!” 한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돈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이 “아니, 목사님이 더위를 먹으셨나?” 아니면 “목사님이 웬 농담이시지?” 하며 제 걱정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거지(몸이 아파 구걸도 못해 굶주린 불쌍한 거지)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100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도 잘난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선물은 무슨 선물 입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다할게요.” 하며 열심히 노력하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 하고 있으니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며 주님을 주인이 아닌 종으로 부러먹는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선물(은혜)을 믿음으로 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송명화 목사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 591-6번지 4층(심곡로 9번길 28)
h.p 010-3098-7270, Tax 032-653-9098

세계영성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낮예배 : 오전 10:30
주일오후예배 : 오후 2:00
수요예배 : 오후 7:30,
목요 은사집회 : 오후 7:30
새벽기도회 : 오전 6:00
금요찬양 일천번제 : 오후 7:4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임명숙 목사

경기도 안성시 구례골길 213-8 전화 : 010-4087-3468

삼성중앙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낮 예배 : 주일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 오후 2시
수요예배 : 오후 7:00
금요철야예배 : 오후 7시
매일저녁기도회 : 오후 8시

탈퇴공고

제일영광교회는 담임목사님의 천국환승으로
백석총회 수원도회를 탈퇴하기에 결의하였음

2022년 4월 1일

고인순 사모

한국기독교
장로회



담임 오종설 목사

충남 홍성군 홍북읍 자경로51 ☎ 041)631-9146

평안하고든든한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오전 : 1부예배 오전 9:30 2부 오전 11:30
주일오후 : 저녁 8:00 수요일예배 : 저녁 8:00
금요심야기도회 저녁 : 8: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40
(토, 주일 개인별 자유롭게)

열두광주리 기도원



김경호 목사

☎ 010-8411-0191
충남 세종시 연서면 도산교북로 438

열두광주리 기도원

새 능력 새 은혜 새 역사
성회 신청접수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이혜진 목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83-21
☎(032)667-7147 H.P 010-3287-1500

벤엘중앙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홍형표 목사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
☎(02)583-1955 H.P 010-7585-1955

사랑의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한국기독교총회 총장
사도영성신학연구원 원장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담임 최낙헌 목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정기환 목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75번길 30-5
☎(032)321-9109

전원중앙교회

주일예배안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순옥 목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능곡로 36 (23), 3동 101호 (안양동, 우성아파트)
☎(070)8632-6993 H.P 010-3035-5704

조에 교정선교회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성경적 천국환송예배, 부활실천운동 시급하다!

한국의 전통장례문화가 기독교 장례문화로 바뀌어져야



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총회(총회장 김현수 목사)는 지난달 28일(월)~30일(수)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화성시 서동탄로 소재 꿈너머꿈교회에서 '초교과 전국목회자 부활실천신학, 제25기 천국환송지도사 과정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총회장 김현수 목사(투헤븐 선교회, 부활실천신학 연구원)가 강사로 나섰다.

김현수 목사는 성경적 천국환송예식 이용절차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요점을 설명하는 등 명강의를 펼쳤다. 투헤븐 창조대표 김현수 목사(웨신총회 총회장)는 그리스도인의 최종은 사망이 아니라 부활이며,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며, 영생이라면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고 이것이 to heaven이며 투헤븐창조의 시작이며 사역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총회장은 세미나에서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전통 유교식 장례문화가 명칭만 그럴듯하게 기독교 장례문화로 바뀌어 지금까지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안타까워했다.

기독교 안에서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사용해서는 안 될 언어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날 진행된 기독교 천국환송예식에 대한 새 패러다임, 투헤븐 선교회는 성경 말씀을 중심, 많은 책을 발간하고, 이를 교재로 사용

전통적인 장례 용어와 용품들의 이름도 성경적 용어와 용품명으로

하고 있다.

2박 3일간 진행된 초교과 전국목회자 부활실천신학 세미나에서 참석한 목회자들은 김 목사를 통해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다며 현재 한국교회가 행하고 있는 장례문화가 속히 바뀌어야 한다고 시급함을 토로했다.

현재 '초교과 전국목회자 부활실천신학 제25기 천국환송지도사 과정'을 수료한 목회자가 25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번 제25기 천국환송지도사로 배출된 목회자들은 다짐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의 잘못된 기독교 장례문화는 부활실천신학을 새 패러다임 해서 기독교 천국환송예식으로 대혁신이 일어나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그러면서 장례식장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언어구사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 자신부

터 개혁해 나가자며 다짐했다.

현재 한국교회는 장례예식을 기독교식으로 하고 있지만 사 용하고 있는 용어나 용품들의 용

성경적 용어와 용품명으로

어는 불교나 천주교에서 이미 오랜 전통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와 같은 장례용어나 용품 용어를 우리 한국교회가 그

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은 특히 기독교 상조의 관계자들은 잘못된 장례문화를 더 이상 확산하거나 정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잘못된 장례문화는 성경적이지 아니며, 비기독교에서 행하는 우상 숭배문화이다. 한국교회는 이를 답습하고 있기에 가슴 아프다고 했다.

이번 부활실천신학 천국환송지도사 세미나에서 수강생 모두는 그동안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천국환송의 성경적 이해와 더불어, 장례용어와 용품 절차의 깊이 있는 명강의를 통해 알았으며, 또한 분당에 있는 그리스도인 전용의 '홀리캐슬' 방문을 통해 실제 사역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등 많은 유익을 체험했음을 토로했다.

강사 김현수 목사는 '하나님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선교사를 통해 생명의 복음을 심어주셨고, 이후 우리나

사회에 기독교적 가치관에 의한 변화가 시급하고, 또는 미진한 분야가 기독교적 천국환송(기독교 장례문화)인 만큼,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성경에 입각한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이번 제25기 세미나에 참석한 웨신, 증경총회장 허창범 목사(17~18대 총회장)는 천국환송이라는 기독교장례문화사역이 한국교회에 꼭 필요하다면서 부활실천신학 천국환송지도사 세미나를 통해 공감을 표하면서 '항후 한국교회가 성경적 천국환송에 대한 깊은 이해력이 필요하며, 더욱 확산·정착시키는데 동참해 나아가길'을 촉구했다.

또한 증경총회장 허창범 목사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호남노회에 소속한 목회자들의 수강료 등을 감당해주었다.

이어 지저스타임즈 cjtn tv 대표 정기남 목사는 비성경적인 장례문화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의 장례문화가 부활실천신학 천국환송인 성경적 기독교 장례문화가 확산 정착하는 운동에 신문방송을 통해 앞장설 것을 약속하고, 이 행사에 애써주신 총회장 김현수 목사(투헤븐 선교 대표), 홍미표 사모(투헤븐 선교 회장), 힘써서 봉사한 최현정 국장, 교회 성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제25기 세미나 수료자들에게는 김현수 목사의 천국환송 관련 저서 등을 증정했으며, 천국환송지도사 수료증을 수여하고,

완벽한 승리자, 예수 부활을 축하합니다



김현수 목사
웨신총회 총회장

2022년의 부활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

했던 부활절이기에 너무도 반갑고 신이 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마음껏 부활을 찬양하지 못했기에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은 죽음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하신 사건이기에 감격합니다.

이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무엇이라도 다 풀릴 수 있습니다. 이미 해결되었고 극복됐고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활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승리의 부활 찬양이 한국강산과 온 땅을 뒤덮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론적

인 부활을 넘어 실제로 부활의 삶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져야 합니다. 움추렸던 나 자신이 살아나고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며 세상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질병과 어두움의 세력들이 부활의 예수로 다 떠나갔음을 믿습니다.

2022년의 부활절을 맞이하며 한국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나누며 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고 모든 악에서 승리했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완벽한 승리자이신 예수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돌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총회
총회장 김현수 목사

투헤븐 선교회와 함께 천국환송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졌음을 밝히고, 김 총회장은 성경적인 부활실천신학을 실제로 한 행함의 복음이라면서 이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To Heaven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투헤븐 창조의 연락처와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1800-7039 www.투헤븐.com 이다.

한편 지저스타임즈(대표 정기남 목사)는 신문방송을 통해 투헤븐 창조에 관한 성경적 용어와 용품에 대해서 연재해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이번 세미나는 꿈너머꿈교회(담임 김현수 목사)에서 장소를 제공했으며, 주회는 여장 웨신총회이며, 투헤븐선교회 및 부활실천신학 연구원이 주관했다.



기독교 장례 새 패러다임

투헤븐 창조 1800 - 7039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도 잠을 깨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2:8)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부활실천신학을 실제로 한 행함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은 사망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며,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잠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to Heaven이며 **투헤븐창조**의 시작입니다.

성경적 용어와 용품을 사용합니다.

출처:투헤븐선교회(대표:김현수목사,특허출원,상표등록,디자인,서비스표,저작권 등록)

차별성

장례가 아닙니다. 고인이 아닙니다. 수의를 입지 않습니다. 묶지 않습니다
근조,부위가 아닙니다. 상주,상복,유가족이 아닙니다. 완장이 없습니다.
영정사진에 리본이 없습니다. 염이 아닙니다. 입관,발인,하관이 아닙니다.

김현수 박사(투헤븐선교회 대표) "부활시리즈 도서"



부르심(소천)시 바로 1800-703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이용안내

- * 접수 후 전문 예식매니저가 출동합니다.
- * 일정 및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가족들과 협의하고 결정합니다.
- * 천국환송전용의 용품으로 예식을 진행합니다.
- * 예식 종료 후 비용을 후불로 정산합니다.
- * 유품 및 행정서류등의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www.투헤븐.com YouTube: 투헤븐TV 네이버,다음,구글:"투헤븐창조"천국환송 검색
도서주문 및 행사 상담문의: 최현정 국장 010-2748-2369

- 홈페이지 무료회원 가입 혜택 : 행사시 프리미엄 예코화환 증정
- 천국환송예식 및 장례 토털서비스 컨설팅 상담 환영합니다.
- 투헤븐창조의 111나눔운동에 동참하여 선교적 사명을 함께 할 교회 및 단체 환영합니다.

▶▶ 강해설교 ▶▶

일곱별, 일곱 금촛대의 비밀

영원한 복음운동과 바른 목사 양성,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정기남 목사
(변집인)

계 1:19-20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20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의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신비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아멘.

사도 요한은 정배지 밧모섬에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 주시려고 그분께서 주신 것이라(계 1:1)고 하셨다. 이 말씀은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일어나야 할 종말계시의 말씀이다. 이를 가리켜 거룩한 영감의 산물이라 하겠다(계 1:10). 본문 계시록 1장 19절 상단에 「내가 본 것들과...」 하였다. 이어 계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 들은 사도 요한이 영감 속에서 바라본 계시적 환상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

「내가 본 것들은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 등잔대의 신비라고 했다. 즉 비밀이다. 여기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일곱 금 등잔대는 일곱 교회라(계 1:20)고 하셨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사도 요한에게 영감으로 보여준 환상의 정체는 일곱 금 등잔대는 일곱 교회라고 했다.

I. 일곱 금등잔대는 일곱 교회라고 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들 일곱 금 등잔대는 일곱 교회라」 고 하셨다. 사도 요한은 정배지 밧모섬에서 계 1:10절에서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라고 했다. 여기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계 1:11절에서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즉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큰 소리 앞에 압도된 요한은 순간적

으로 몸을 돌이켜 그 음성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하였을 때 「일곱 금촛대」를 보게 되었다(계 1:12). 그 금촛대 사이에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계 1:13-16). 성령은 사도 요한에게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하였다. 그 일곱 금촛대 사이에 영광의 주님이 걸어 다니시고 있었다(계 1:13, 2:1, 8, 12, 18, 3:1, 7, 14). 「일곱」은 완전성, 거룩성, 영원성을 나타내는 영적 수이다. 「금촛대」는 구약 스기라 4장에 나오는 일곱 등잔과 순금등대에서 유래한 것인데, 교회를 가리킨다고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다(계 1:20). 왜 교회를 촛대에 비하며, 금 촛대에 비했을까?

①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공급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마 5:14-16). ② 금 촛대라 함은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서 보배 중에 보배가 된다는 의미이다. ③ 또한 금처럼 참된 교회는 불변하고, 불멸함을 보여준다. 교회야말로 사막의 진주처럼 보배롭고 소중하다는 의미가 된다. ④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금처럼 이 세상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든지 동전의 공동체임을 알려주고 있다. 일곱 금촛대라고 함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는 전 세계 교회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다.

II. 일곱 별을 가리켜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라고 하였다. 여기「사자」(angel)를 ① 교회의 수호천사 ② 아시아 일곱 교회의 감독 ③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에 전달한 사람 등으로 해석하기도 하나 ④ 확실한 것은 주께서 세워주신 일곱 교회(세계 교회)의 복음 사역자들을 가리키고 있다.

그 일곱 별은,

1.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다고 했다.

계시록 1장 16절에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라고 하였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아...」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일곱 별은 전적으로 주님 자신의 수중에서 통치되고,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른손」은 힘 있는 손, 일하는 손, 보호하는 손으로 이해된다.

주님은 그가 세우신 교회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힘있게,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다.

2. 그 사자들의 정체가 「별」이라고 했다.

그것은 몇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다.

① 먼저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영광을 생각나게 한다. 「별」같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제1창조(육신)는 물론 그리스도를 통한 제 2창조(구속)인이라는 사실이다. 새로운 피조물임을 보여준다(고후 5:17). ② 아브라함의 언약 곧 선택의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의 자손들의 칭호로 하나님의 별이라고 하였다(창 22:17). ③ 하나님의 권능에 꼭 붙잡힌 사람임을 보여준다. 저 높은 고공에 있는 별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자기 통치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과 같다. ④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질서에 따르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⑤ 고상하고 고매한 이상적(理想的) 존재임을 보여준다. 감히 타의 추적을 불가능케 만드는 고공에 떠 있는 움직이는 별들과 같은 존재들임을 생각나게 한다. ⑥ 뜨거운 존재임을 보여준다. 발광체인 별이 스스로를 태우고 있다. 그 뜨거운 불덩이가 캄캄한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자들은 성령의 도구들이다. 열정적인 복음의 가슴을 소유한 자들이다. ⑦ 캄캄한 밤의 시점을 알려주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인생의 갈길, 역사의 갈길을 안내하는 인도자이다. 저 동방의 박사들을 주님 계시는 곳으로 인도한 별처럼, 교회의 사자들은 바로 역사의 선구자요 인도자 같은 존재임을 보여준다.

III. 별들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금촛대(교회)는 별들의 반짝임을 그 존재적 생명으로, 그 존재적 정체성(正體性)으로, 그 존재적 필연성으로, 그 존재적 본질성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값진 교회, 중(重)한 교회, 귀한 교회 곧 금촛대를, 감독자(목자, 사역자)를 세워 치게 하셨다(행 20:28). 별과 같이 빛나는 당신의 사자들을 세워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운동, 곧 교회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지상에 자리잡은 유구한 2000년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제자운동,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소명하시고, 사명을 주신 사람들에게 의하여

제2장 사도영성 운동의 성경적 기초(27)

교회성장을 위한 세가지 영성훈련!

홍향표(요한) 목사
사도영성신학 학장

지난 호에 이어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과 관련하여 요한은 말하면서 '민는 사람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하며,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요 7:38-39)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명'과 '성령'을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본다. 이와는 경우가 다르기는 하지만 '목숨'이나 '생명'을 가리킬 때에도 '영'이라는 표현을 썼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 어졌다"라고 말씀하신 후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고 하는데 원문에는 유일하게 요한복음서만 '영(프뉴마)을 거두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요 19:30) '목숨'을 '프뉴마'(영)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통해 볼 때 요한이 말하는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라

는 것은 '성령'이나 '영'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명을 갖는다'는 말은 '영성생활의 목적에 도달한다'는 말이기도 하며, '생명을 누리다'는 말이 곧 '영성생활'을 의미하는 것 같이 보인다.

'생명'과 '성령'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은 거듭나는 생활에 관한 니고데모와 예수와의 담화 가운데 잘 나타난다. 요한에게 있어서 생명은 '거듭나는 체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의 목표가 생명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거듭남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3-5)

여기서 '본다'는 말은 '경험한다, 맛본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이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공관복음서의 전승을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가 있다. 니고데모와의 담화와 같은 전승의 배경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율법학자와의 대화가 공관복음서에 나타난다. 마가에 따르면 어떤 율법학자가 가장 큰 계명에 관해서 예수께 물었다(막 12:28-34; 마 22:34-40; 눅 10:25-28).

마가에 따르면 그때 예수께서는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멸지 않도록"(막 12:34) 공관복음서에서 니고데모와 같은 율법학자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물음이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지만 누가의 보도에 따르면 율법학자는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다.

다음호에 이어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다. 2022년 기독교 역사는 말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별들의 운동이, 별들의 전쟁이 왕성할 때는 그 개인과 민족과 역사가 복을 받았다. 그러나 그 시대의 별들의 반짝임이 없을 때는 그 시대의 역사가 혼돈에 빠지고, 방향감각을 잃어버리고, 암흑 속에서 신음하는 모습들을 겪어왔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문제의 시대를 만나고 있다. 바로 탐자 문명의 극성기를 맞고 있다.

21세기의 특징은 ① 권력의 종교화이다. ② 경제의 종교화이다. 유물숭배이다. ③ 지식의 종교화 시대이다. ④ 온갖 타락한 거짓 종교가 대통합을 이루어 이른바 종교 일치주의 시대를 야기하고 있는 시대이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난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거짓 선지자 시대를 말한다. 교회의 살길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말씀)과 예수의 증거(신앙)(계 12:17, 14:12)를 가진 교회 지도자가 나오는 일이다.

깨어 자기 옷을 입고 진리를 파수하는(계 16:15) 이 시대의 별들의 반짝임이 있어야 되는 일이다. 거룩한 성령에 취하여

역사의 갈 길을 알려주는 별들이 나오는 일이다. 참된 십자가 복음의 전사(戰士), 복음 운동의 지도자가 나오는 일이다. 말하자면 별들의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미국의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선지학교는 그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한 단체 중에 하나였다.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 장로교회가 자유주의신학으로 좌경화할 때 매체를 위시한 깨어있는 신학자들이 좌경화한 프린스턴선지학교에서 나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와 그 대소요리문답에 임각하는 웨스트민스터선지학교를 세워(1929. 6. 17), 미국에 범람한 자유주의신학의 물결과 싸웠던 것이다. 금년 2022. 6.17 되면 벌써 93년의 역사가 되고 있다. 그 학교로 말미암아 오늘 개혁주의 선지 학의 물결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지저스타임즈 신문과 cjtn tv, cpj tv방송을 약 18년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본인은 일찍이 하나님 앞에서 순교적 신앙과 사명의 중요성을 크게 통감하고 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며 고백해 왔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에게도 강조한 것은 사실이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사

명자들을 한알의 밀알로써 자신의 존재를 주님께 다 드리고 사역에 매진해야 한다.

오늘 우리들의 존재는 21세기의 세계영계를 책임질 금촛대의 일곱 별들을 서원해야 한다. 말하자면 이 시대의 우리가 순교적 신앙 파수와 증거에 이르는 참된 복음 운동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이 시대를 이어갈 후학도를 양성해야 할 사명을 갖고 이를 목표로 서원하는 일이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자체 안에서 복음 운동의 사명자를 양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것은 바로 말세에 바른 목사를 양성하고,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필자가 몸 담고 있는 인천 영광교회의 조강수 목사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목회를 초청하고 쌀과 교통비를 지불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사명자 회복운동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한 국교회의 새바람이 일어나야 할 것을 강조하고, 다시 개척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수 많은 목회자들을 다시 교육시키고 다시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축예장진리총회, 대한노회 춘계 정기노회

부활 주제 :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살전 5:16~18절)

노 회 장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서 기

박민규 목사
천성교회

회의록서기

김은임 목사
감사교회

회 계

김정미 목사
새에루살렘교회

감 사

유순옥 목사
조에 교정선교회

2022년 4월 12일 춘계 성노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진리총회 :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 10, 7층 대림프라자 고호5 Tel 031-424-7612
노회장 : 장한국 목사 H.P 010-4436-7060, 서기 : 박민규 목사 010-9621-9627

인천영광교회 조강수 목사

전국목회자 200여 명 초청 성령의 불!

목회자들의 가슴이 뜨겁게 불타고 있다.
목회자가 불 받고 변화돼야!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산다!



조강수 목사(영광교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잠 15:13).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잠 15:23-24). 아멘.

목회자가 변화되어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는 길이 열린다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불같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조강수 목사(영광교회 담임). 코로나19 팬데믹을 마치 죽음의 사자를 만난 것처럼 두려워하고 청치가들의 입김에 벌벌 떨고 기었던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함을 얻어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달라던 2만여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을 걸, 200만 명의 성도들이 세상 길로 흩어졌겠는가? 날마다 이걸 생각하면 눈물 밖에 나지 않는다며 목 놓아 기도하는 조강수 목사와 영광교회 성도들이 있다.

조 목사와 성도들은 힘을 합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특히 개척교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0여 명의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강행하면서 등록한 교회를 향하여 매월 10만 원을 온라인 계좌를 통하여 후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 목사는 적게 주어서 미안하다면서 적어도 한 교회당 30만 원은 후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한다.

조강수 목사는 세미나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면서 목회자들을 향해 힘내라며 격려하고, 메시지의 내용은 지난 1년 동안 한결같이 인간적인 편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고 있다. 지금껏 조 목사 자신을 자랑하거나 하는 일은 없고,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목회자의 자세와



▲ 영광교회 예배 중

다고 없는 척도, 배고파도 배고픈 척도 하지 말고 오직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다. 근본은 아직 목회자의 자세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권한다. 항상 긍정적인 언어와 자세가 몸에서 배어나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강사로 나선 조강수 목사는 잠 3:5~6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공통점은 본심이라면서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본심이란 겉모습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본심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대인관계에서 본심이 통한다는 것은 그 인격이 변화되었다고 하겠다. 하지만 본심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대인관계 있어서 그 인격은 별 불일 없으며 대인관계에 실패자라고 본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에서도 본심이 있으심을 알 수 있다. 예레미야 애가 3:33절에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고생시키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고 하셨다.

신구약 말씀을 통하여 보면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시킨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땅에 들어가게 하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복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까지 열리고 있는 목회자 초청 후원 및 세미나에서 조강수 목사는 불같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목회자 자신부터 변화되어야 한다며 시급성을 강조했다. 목회자의 가슴이 성령의 불로 뜨겁게 불타야 교회를 살리고 양떼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목회자의 본심이 변화되는 데 있어 생각이 바뀌고 영적인 눈을 떴을 때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피력했다.

전국목회자 초청 후원예배 및 세미나를 개최한 지 벌써 53회째를 맞고 있다. 세미나 장소인 인천영광교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손 소독과 거리 두기 등 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200여 명의 목회자를 전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음식으로 대접하고 있다.

조강수 담임목사를 비롯 장로, 권사, 집사 등 성도들이 밤마다 성전에 나와 무릎을 꿇고 전국교회와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천사들을 보는 듯 감동적이다. 또한 조 목사와 성도들은 세미나에 참석한 하나님의 기쁨 부음 받은 목회자들을 환영하면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결사가 되시는 하나님

에게서 큰 역사를 이루어주시길 것이라며 힘내시라며 인사를 한다.

지저스타임즈 CJTN TV방송 기자가 바라본 조강수 목사는 한순간 아픔도 있었지만 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를 계기로 더 많은 능력과 매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다고 한다. 또한 조강수 목사는 cjntv(http://jntv.kr) 방송을 통하여 세미나 영상과 주일에 배영상을 녹화방송하고 있으며 많은 구독자들의 시청으로 은혜를 주고 있다.

▲ 영광교회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

조강수 목사는 자가용은 없고 최근 12인 승 버스를 구입

조 목사는 기도하던 중 전국목회자초청 후원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큰 교회는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영광교회 교인들이 많이 감소 되어 빈자리가 많아졌고, 반면에 재정적으로도 어렵지만, 이웃 교회들과 개척 교회들을 바라볼 때 30년 전 조 목사 자신이 천막을 치고 성도 한 사람도 없는 곳에서 사모와 같이 교회를 운영했다면서 그때를 생각하

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조강수 목사는 자가용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집회를 나가고 때로는 산에 올라가 기도한다고 말한다. 성도들과 많은 동역자들이 왜 자가용이 없느냐고 묻는다고 하지만, 조 목사 자신은 자가용을 갖는 것보다는 자가용을 굴리는 운영비와 보험료 등을 절약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역자들을 돕는 일이 더 기쁘고 마음이 평안하다고 했다. 조 목사는 그러면서 대중교통인, 마을버스, 지하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가용이라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겠다고 한다.

시바 찬양단이 있다. 많은 목회자들은 험시바 찬양단의 찬양에 감동되어 할렐루야!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놀라는 모습이다. 그런가 하면 전국목회자초청후원의 단체인 배정회 목사, 사무총장 이선한 목사와 회원목회자들은 기도하면서 뜻을 같이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방문, 또는 초청을 받아 집회를 열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어 자랑스럽다.

▲ 전국 목회자 후원예배 및 세미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려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인간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다. 그 사람의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내게 담긴 고난도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기쁜 일은 물론이고 슬픈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데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하라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민을 질병을 치료하시고 가난을 축복으로 바꾸어주신다. 그리고 가난을 축복으로 바꾸어주시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본심을 깨달아야 한다. 아멘.

조강수 목사 설교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판- 중에서

또한 영광교회는 권사들로 구성된 험



▲ 찬양경연대회

축 부 활

대한예수교 장로회

표어 : 창세로부터 주님재림시까지 세계에서 가장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예배 / 안내

주일낮예배
오전 11:00 / 오후 2:00
수요일예배 / 저녁 8:00
금야철야 저녁 8:00
목회자 선교 세미나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까지
Tel 032)577-1225
Tax 032)581-3723

인천 영광교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11:25)

담임목사 조 강수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광고개로 366(구.가좌동) 전화 : 032-577-1225

담임목사 조 강수



가정예비

주님과 함께 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JTNTV방송 사장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백석TV칼럼리스트
- CTS칼럼리스트

제목: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여호수아 6:15-27 찬송가 412장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것이냐 먹히느냐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출발하여 가나안땅까지 수 없는 고비고비를 만났습니다. 여리성은 밀밭이 6미터요 위로는 4미터나 되는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위급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정신만 차리면 살길이 있습니다.

제목: 이어가게 하라 1
성경: 여호수아 7:1~15 찬송가 237장

여리고의 견고한 성이 약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강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 가운데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성에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고 어떤 것이든 취하지 말고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대어 하나님이 진노하였습니다.

제목: 이어가게 하라 2
성경: 여호수아7:1~15 찬송가 270장

나 한 사람은 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이스라엘이
벌을 받습니다.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인류가 벌을 받습니다. 지난날 은혜로
살았다면 오늘 작은 싸움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

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이 나의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무너지니다. 아이성이 작아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 은혜와 복을 이어가게 합시다.

제목: 죄를 다스리라
성경: 창세기4:1~7 찬송가 440장

가인이 마음속에 악한 욕망에 따라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범죄하기 전에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마음속에 도사리는 죄의 욕망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받는 유혹에 무관심하지 않고 개입하십니다, 유혹에 직면할 때 마음속 메아리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제목: 더욱 그렇게 하라
성경: 살전4:9-12 찬송가 214장

바울은 네살로니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사랑은 아가페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각 개인의 이익을 위해 모든 세상의 칭고 모임과 달리, 모이기만 하면 형제의 영적, 육적, 물질적 필요를 살피고 사람을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잘 하면 더욱 잘합니다.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은혜의 믿음으로
성경: 에베소서 2:1-10 찬송가 305장

사도바울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뱀 보듯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만 보면 악랄하게 박해했습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았을까요? 은혜의 신앙으로 돌아가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죽은 자였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생명이 있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엡2:3-5).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목: 확신
성경: 시편 89:1-4 찬송가 336장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국가적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죄인을 공의로 갚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심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특히 그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심을 나타냅니다. 성도는 과거에 체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과 신실하심을 찬송하며 증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목: 나의 마지막 말은?
성경: 사무엘하23:1-7 찬송가 399장

다윗은 노년에 마지막 말을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쁨 받은 자, 노래 잘 하는 자라고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 생활은 어려워도 생각은 부자 같은 마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 사용합니다. 2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제목: 우리의 신분
성경: 베드로전서2:4-10 찬송가288장

성경은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합니다.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이 우리도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과 귀촌자 같으면서 환경에 좌절되지 않습니다. 구신의 종노릇 보다 하나님의 종 노릇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죄인에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제목 : 예배
성경 : 시편 29:1~2 찬송가 305장예배

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사전적 정의는 '자기 신앙의 대상에게 굽혀 절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 정의는 몸과 마음과 시간 그리고 물질적 것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본 절과 2절에서 시인은 선언적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더 온전하고 정성이 담긴 찬양과 영광을 돌려 드리고자 하는 다윗의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목 :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성경 : 창세기 11:27~32, 찬송가 237장

오늘 본문에 하람은 산꼭대기, 산, 교차로라는 뜻입니다. 교통의 요충지, 금싸라기 땅, 같은 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람은 무역이 성행했으며 돈이 많고 살 만했기에 데라의 가족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먹고 살 만한 것 때문에 목직지를 놓치고 살지 맙시다. 사람들은 은혜

받을 때는 사명 충만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보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야 할 길을 보지 못합니다. 교차로란 뜻의 하란에 혹시 만족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보따리 싸고 가나안땅 향하여 갑시다. 땀땀 뭇쳐서 아직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목: 후대를 기억하라
성경: 열왕기상 11:9~13 찬송가 250장

어떤 사람으로 부름 받았느냐 보다
지금 어떤 사람으로 쓰임 받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돌아가자

OC 전도회연합회 조정민 목사 초청 말씀축제... 수익금 일부 우크라이나 난민 위한 기금 전달

OC 기독교전도회연합회가 주최한 조정민 목사 초청 말씀 축제가 남가주 사랑의교회에서 열렸다. 본사가 후원한 가운데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OC전도회연합회) 주최, OC기독교교협회의(이하 OC 교협, OC 장로협의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평신도 신앙 향상을 위한 조정민 목사 초청 말씀 축제가 '다시 복음 앞에 서다'(롬 1:16-17)란 주제로 지난 13일(주일) 오후 6시 남가주 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열렸다.

윤우경 이사장(OC전도회연합회)의 인도로 진행된 가운데 OC교협 회장 심상은 목사(갈보리산교회 담임)는 "오늘 강사로 오신 두 목사의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나오는 쓴소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쓴소리가 되어서, 영적으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대각성의 신호를 알리는 복된 집회가 되길 바란다"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생수 장로(OC 장로협의회 회장)가 성경복독(롬 1:16-17)을 하고, LA 목사 추창단(지휘 서문옥, 단장 외영)이 특별찬양(외영)을 영감 돌린 후 조정민 목사가 '다시 복음 앞에 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조정민 목사는 "예수님 당시가 힘들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지금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둘 다 힘들었다고 생각한다. 언제나 상황은 어렵다. 누구든지 어렵고, 누구든지 힘이 든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과 힘 들어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습니까? 시작과 출발도 중요 하지만 끝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때리기 전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도 성령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말 하실 때 순종하길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후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목: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성경: 시편 106:1~5 찬송가 204장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첫째 이유는 주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통치자보다는 선한 통치자를 만나는 것은 찬양할 만한 이유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선한 하나님께 우리도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을 건널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신용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공인되고, 지하교회가 지상으로 드러나면서 오히려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진 것이 얼마나 많은가? 수많은 남동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일들이 자행되었고, 얼마나 심자기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 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전제왕이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되어 왔는가? 예수님은 이 때문에 뱀 전하고 십자가하셨는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일까? 왜 교회는 줄어들고 말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부르신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신다면 위대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위대한 존재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목사는 또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지대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부족해서 오늘날 교회가 위축된다고 생각하는가? 사도바울은 로마교회를 향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복음을 저주했던 사람이다. 한때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다. 그랬던 그도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가? 도대체 복음은 무엇인가? 복된 소식은



2022년 지저스타임즈 5월 이사회 및 기도회 공고

이사장	직전이사장	사 장
		
오종설 목사	허창범 목사	소진우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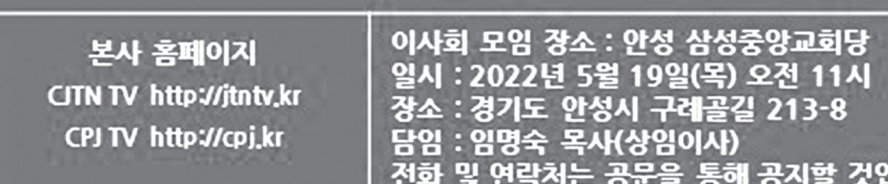
전국에서 모한 해외에 계신 지저스타임즈 이사님 여러분 강녕하십니까?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하여 오랜기간 침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지개를 펴고 높이 비상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언론사 방송 신문사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도회를 갖게 됨을 알립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부디 왕림해 주셔서 언론 방송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덕담과 격려해 주셨으면 이 어려운 때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오종설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및 직원일동 배

대표이사	경영이사장	경영이사장	영예이사장	영예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주 필	논설고문	상임고문	자 은	자 은	자 은	부사장	부사장	부 사장	부 사장	부 사장	수석원장
																				
장남 목사	조광수 목사	강보은 목사	전국국 목사	이길필 목사	권은은 목사	박수영 목사	송영은 목사	홍규표 목사	송락 박사	백명은 박사	백숙 목사	아은의 목사	최길 목사	김석 목사	고성욱 목사	강보은 목사	아은의 목사	유은주 목사	조은 목사	백진 목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논설위원	운영이사	운영이사	운영이사	홍보국장	사무총장	사무총장
																						
이승정 목사	백승호 목사	이승철 목사	권은국 목사	이승철 목사	최승철 목사	임요한 목사	박승철 목사	김부경 목사	김창숙 목사	임창숙 목사	백창숙 목사	박창미 목사	배영자 목사	임애성 목사	윤재선 목사	유리남 목사	이대선 목사	성순희 목사	류재현 목사	박찬주 목사		

본사 홈페이지
 CJTN TV <http://jntv.kr>
 CPJ TV <http://cpj.kr>

이사회 모임 장소 : 안성 삼성중앙교회당
 일시 : 2022년 5월 19일(목) 오전 11시
 장소 : 경기도 안성시 구례골길 213-8
 담당 : 임명숙 목사(상임이사)
 전화 및 연락처는 공문을 통해 공지할 것입니다.







지저스타임즈 / CJTN TV / CPJ TV 경기도 부천시 지양로 176번길 32 (대운빌라 202호) 전화 / 032-672-3031(팩스겸용) 대표 : 010-5468-6574

축 부 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표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YEBOK PRESBYTERIAN CHURCH
 복음으로 세계를 품는 예복교회의 선교사명
 Global Yebok

소진우 목사 사역
 지저스타임즈 신문 사장
 Cjtn tv 방송 사장
 Cjtn tv 가정예배 칼럼리스트
 한국언론부흥사협의회 명예총재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Good TV 칼럼리스트

담임목사 소진우

주일예배	대예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시
	유치부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청년대학부	오후 2시
수요예배	중고등부	오후 2:30분
	수요일 오후 8시	
	수요일 오후 10시	
금요철야예배	토요일 오후 10시	
	토요일 오후 10시	
토요철야예배	매일 오후 10시	
	단, 주일과 수요일은 제외	
삼야기도회		

교회: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40(장암동) Tel. 02)934-1232

DREAM CHURCH **대한예수교 장로회 꿈의교회** **WWW.mokpodream.org**
 꿈을 잃은 자들에게 꿈을 주며
 꿈을 가진 자들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꿈의교회
 DREAMS COME TREE

축 부 활

예배/안내
 주일 1부예배(일) 오전 7시30분
 주일밤 예배(일) 저녁 7시30분
 삼일밤 예배(수) 저녁 7시30분
 금요 예배(금) 저녁 9시00

담임목사: 이 요셉

주소: 전남 목포시 산정로322-3(연산동) 전화: 061) 277-0496 차량운행: BUS 3번, 60번, 600번

축 부 활 **대한예수교 장로회 푸른솔교회**
 Pinetree Presbyterian Church

2022 표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수 14:12)**
 -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교회
 - 울며 씨를 뿌리는 교회
 - 날마다 영혼이 더해지는 교회"

원로목사 허 창범 **담임목사 김사라**

광주 광산구 수원로 11번안길 47(영무예다움 2차 후문 앞 수원 중 앞) Tel(062)953-4620, H.P: 010-8665-5522

부설 **바울선교신학연구원(사)한국상담교육발전협의회 푸른솔협동조합(상담및대안교육전문) 푸른솔노인복지센터**